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외롭고도 아름다운

又寂寞又美好 - 翻譯論文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 중 과

권 미 란

2020년 7월



외롭고도 아름다운

(又寂寞又美好 - 翻譯論文)

지도교수 송 현 선

권미란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권미란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趙以栢



위 원

金中夏



위 원

宋旻定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0년 7월

1995년 봄,
지미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1년이 넘는 치료를 받은 후,
거의 세상과 단절된 날들을 보냈다.
외롭게, 조용하게.
98년까지, 그의 생활은 오직 그림뿐이었다.
이 책은 그 당시 작품을 수록한
지미의 인생 중 특별했던 그 세월에 대한 기록이다.

1월 3일 날씨 맑음

꿈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를 걸었다.
눈앞은 흐릿하고
손안에 있던 빛은 사라지려 한다.

고요한 세상에서 나는
계속 서둘렀다.
스스로 끊임없이 다독였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길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거친 바람이 내 귓가에 울려댔다

휙 소리에
나는 돌연 하늘 높이 떠올랐다.

*예전에 내가 굉장히 아꼈던 그림으로,
그 당시 내 마음 깊이 감추었던 두려움을 그려낸 듯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1월 9일 날씨 흐림.

문을 열어, 그대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 안에 빛이 희미하니
그댈 위해 불 하나 켜게요.
만일 그대가 잠시 머물 수 있다면,
그댈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끓일게요.

밖은 유난히 고요하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네요.

계단 앞 얼룩 고양이는
먼 곳을 바라보고만 있고,
들새 한 마리는 갑자기 낮은 숲 풀 사이에서 나오더니
허둥지둥 먹구름 속으로 날아갔네요.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니,
우리는 느리고 아늑한 곳을 찾아야만 하죠.

아직도 망설이고 있나요?

문이 곧 닫힐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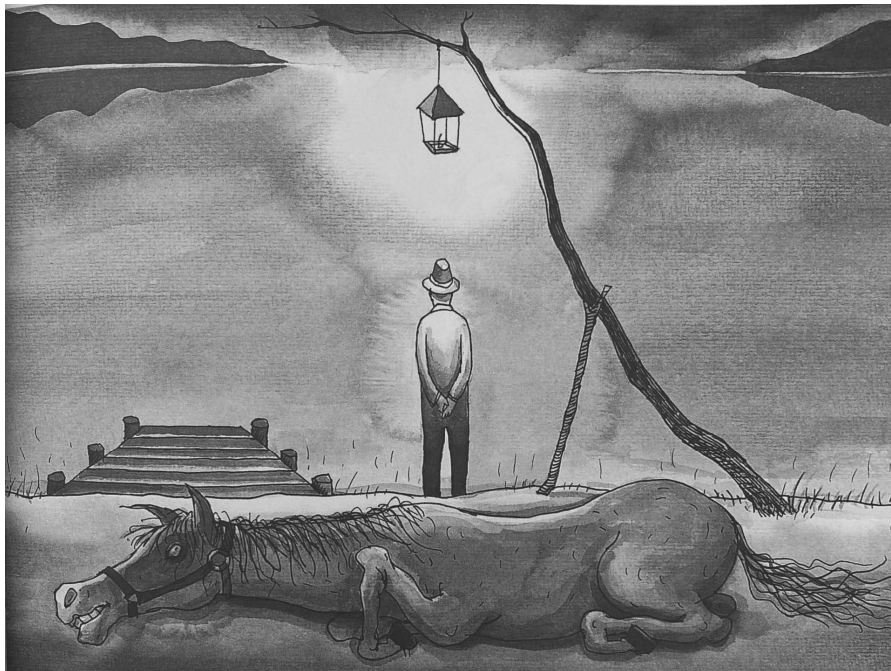
1월 11일 날씨 맑음

창밖을 바라보다,
먼 곳을 바라보면
마치 빗방울이 튀어 창틀에 고인 것처럼
마치 하얀 눈이 내려 사막을 덮은 것처럼
창밖을 내다보면,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이 보이고,
먼 곳을 바라보면, 그대가 나에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마치 창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봄처럼.

*창가에서 작업하면서, 창문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종종 고개를 들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
생각 또한 이 따라서 먼 곳으로 흘러간다.....*

얼굴의 표정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고민될 때,
나는 그냥 뒷모습을 그린다.



1월 17일 맑다가 구름 많음.

장미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녀는 두려움에 가늘게 떨었죠.

「이 세상에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그녀가 상심한 나머지 돌연 시들어버릴까 봐요.



1월 20일 날씨 맑음

그들이 이토록 조용한 적이 없었다.
그들 자신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맞은편 일곱 원숭이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토록 조용한 오후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항상 왁자지껄 떠들고 움직여대며
1분도 가만히 있질 못했다.

*아프고 나서 꽤 긴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다시 펜을 들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그 아무리 왁자지껄한 장면이라도,
내 펜으로는 담담한 외로움이 그려졌다.*

1월 24일 맑음

어스름이 깔리자,
나는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자세를 고치고, 묵묵히 기다린다.
쓸쓸함이 찾아오기를.



1월 27일 비가 옴

바다 한 편을 빌렸지만
집주인을 내보내지 못했다.
해가 저물어갈 때, 나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이 어두운 바다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곤,
고래의 빛나는 두 눈뿐이다.

2월 2일 춥고 습한 날씨

달이 떠오를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흑등고래 한 마리가 돌연 수면에서 뛰어올라
바로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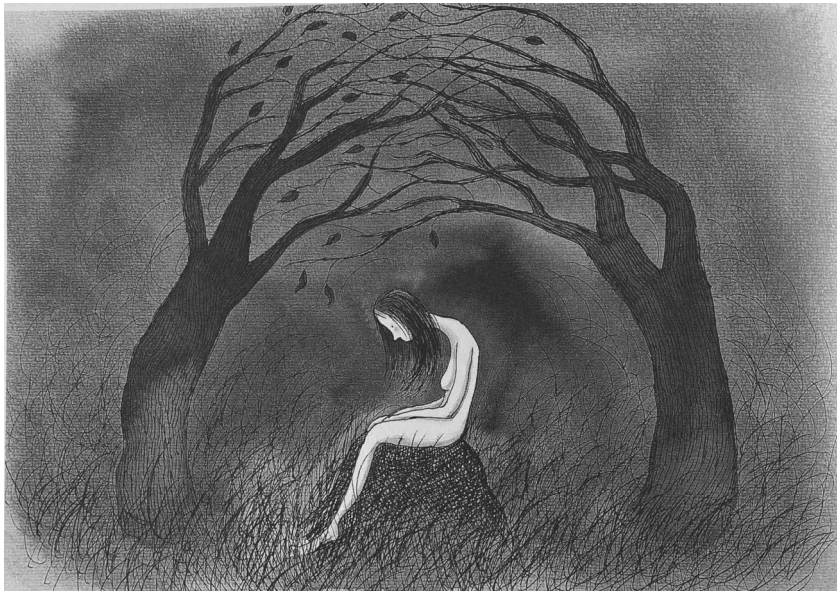
난 왜 여전히 마음속 끊임없이 차오르는 이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을까?

2월 11일 연이은 장마

비가 그쳤다,
여전히 물방울이 때때로 책 위로 떨어진다.
한 줄기 바람이 스치자,
톡톡 물방울이 내 우산 위에서 춤춘다.
신비한 토토로가 정말 온 걸까?
깜빡 잊었네, 우산 하나 더 챙긴다는 걸.

2월 17일 흐리고 습한 날씨

이토록 슬퍼지는 날에
그녀는 끊임없이 기억을 더듬어
완벽하게 외워내고자 한다.
그녀가 어렸을 적 사랑했던
그 시를.



2월 21일 날씨 흐림. 한파가 찾아왔다

이 세상에 시인 말고 또 누가 있을까?
물 없는 수영장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린 그림이 맘에 들면
몇 날 며칠은 의기양양했지
난 정말 천재라며.

점점
그린 그림이 맘에 들더라도
기쁨은 그저 잠시뿐.
그저 아주 잠시, 곧 잊고 말지.

예전에는 그린 그림이 엉망이면
한참을 속상해했지.
난 정말 바보라며.

지금은 만약 그림이 엉망이어도
마음을 먹지. 바로 잊자고.

2월 28일 흐림

힘들고 힘들게
겨우 산꼭대기에 오르니,
산 위에 흰 구름이 줄지어 우리를 반긴다.
그런데, 그 다음은?



3월 1일 맑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3월 4일 하늘에 구름 가득

도시의 가로등은 하도 분위기가 없길래
공원에 촛불을 가득 켜서
황혼 후에 따뜻한 불빛이 비치도록 했지.

사자와 호랑이가 나를 경호하니,
공원의 관리자는
그저 먼 곳에서 소리를 지를 뿐.
내가 공원보호법 제 79조 조항을 어겼다나.

「현실과 다른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누군가를 사랑의 늪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

3월 16일 낮부터 눈이 내림

그들은 인생을 허무함을 깊게 느꼈다.
헤어지는 그 길에서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대화라고는,
「눈 온다.」
「그러네, 정말 눈이 오네. 눈 내리니 예쁘다.」
「정말 예쁘네.」
「그러게, 눈이 오네.....」

3월 23일 날씨 맑음

옷을 걸치지 않은 아기가

밤새 울어댔다.

나비가 화려한 빛깔의 날개로

아기에게 알록달록 예쁜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줬다.

3월 27일 날씨 맑음

노래를 부른다.

온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른다.

강렬한 공명을 당신은 들었나요?

3월 31일 날씨 맑음

우리는 서로 안을 뿐이죠
우리는 서로 안을 줄만 알죠.
아쉽게도 오래 안고 있을 수 없어요.

죽음만이 가장 확실하게
영원히 서로를 안을 수 있도록 하죠.

4월 6일 흐림

그들은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문을 열면 다시 닫고
닫으면 다시 열었다.

그들은 계속 상대방을 찾아 헤맸다.
찾으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계속 찾아 헤맸다.

4월 14일 날씨가 더워짐

작은 꽃무늬는 겐조,
큰 꽃무늬는 웅가로,
작은 도트는 마르니,
큰 도트는 마크 제이콥스,
가로줄 무늬는 폴 스미스,
직선은 페라가모,
체크는 버버리,
부드러운 곡선은 꼼데 가르송,
따분한 사선은 이세이 미야케.

내가 짜깁기했다.

너도 그렇다.

4월 18일 날씨 맑음

하늘에 별이 가득한 어느 밤,
숲속에서 주운
떨어진 아기별,
품에 안고 이야기를 나눴다.

나에게 몰래 알려준 비밀 하나.
달도 어렸을 때
실수로 하늘에서 떨어져
숲에 내려온 적이 있었단다.

4월 22일 날씨 맑음

새장 안에 거짓말하는 새 한 마리가 갇혀있다.

자신이 사람이라고 완강하게 말한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4월 29일 비

그의 몸은 거의 완전히 못 쓰게 되었지만
머리끝에 아름다운 꽃 하나가 피었다.
바람이 불면 꽃이 흔들리며
나비가 날아오고, 새들도 날아왔다.

그제야 그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개구리 왕자의 낭만적인 이야기를 믿게 되었다.



5월 7일 날씨 맑음

그녀는 글이 없는 편지를 읽을 수 있다 말했다.

‘이런 마음에는 행복의 암호가 곳곳에 숨어 있지.’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또 독심술도 할 수 있단다.

연인의 그 어떤 거짓말도 한 번에 알아챌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죠. 나에게 증명해보라 하죠.’

또 그녀는 말했다.

‘연인 사이의 행복과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5월 14일 날씨가 뿌옇다

꽃잎들은 이미 약속했다.
그들은 함께 피고
또 함께 지기로.

천사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다.

이미 약속했다.
평생 함께 아름답기로
함께 늙어가기로.

*이 그림 그리고 나서, 매우 당혹스러웠다.
나의 절망적인 마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5월 18일 날씨 흐림

그녀는 이름 없는 역에서 내렸다.
이상하다.
그 후 이곳을 지나는 열차는 역에 멈추지 않는다.
결국에는 심지어 역까지 사라졌다.
그녀는 역의 구석구석을 기억한다.
벽돌의 문양, 천장의 색깔, 난간의 모양까지.
그러나 이 역에서 내린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열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결국, 그녀는 손을 흔들 힘조차 없어졌다.



이제 더는 기억나지 않는다.
감동적인 그림 한 폭, 또는 하늘의 찬란한 색채,
또는 그저 단순한 광고 삽화 하나 때문이었나?
내 마음속 창작 열정을 불러일으킨 처음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다시금 그림을 그리도록 펜을 들게 했는지.

내가 그저 기억하는 건, 꽤 오랜 시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렸다는 것,
아무런 목적 없이,
순전히 그리는 걸 좋아했을 뿐이다.
나는 이렇게 20년을 그렸고,
생각지 못한 풍요로운 인생을 그렸다.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창작 의욕이 불타오르던 그 시기로.....

그 당시에 난 어떻게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걸까?

5월 21일 청명한 날씨

노를 젓고 저어
저 끝없는 공허함을 향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향해 저어가자.



5월 25일 안개 낀

새벽녘,
강가로 가,
조용히 책을 보며,
얇전히 기다렸다.
오리 두 마리가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점심은 무엇인지.



가끔

예전의 그림을 들추어 본다.

가끔 예전 그림이 무서울 정도로 엉망이라고 느낀다.

심지어 어떤 그림은 정말 내가 그렸나 싶을 정도다.

때로는 독한 마음으로 그 그림들을 모두 찢어버렸다.

사실 자신의 옛 작품을 없앴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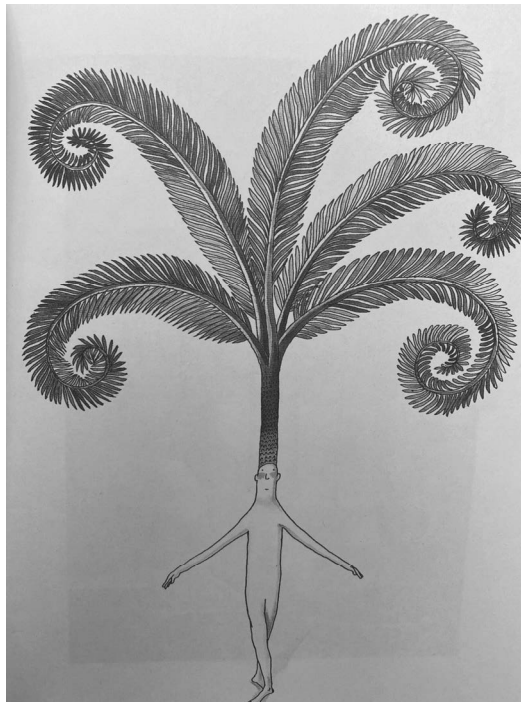
어느 정도의 용기와 충동이 필요하다.

나는 언제나 이런 용기와 충동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5월 29일 날씨 맑음

그는 늘 몹시 주눅 들어 있다.
언제나 두 손을 살짝 벌리고 있다.
이래야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앞으로 한 걸음씩
그가 이토록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 넘어진다면
아마 그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머리 위에 나무가 자란 저 남자.
참 걱정스럽다.



6월 7일 날씨 맑음

꿈에서 하늘을 날고자 했던 그 날 밤,
나는 꿈에서 깬다.

나는 외딴섬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바람은 나의 소리를 흠뻑했다.
별들은 반짝이며 나에게 투덜거렸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이다.

날이 밝자, 지쳐버린 나는 잠이 들었지.
나는 보았지, 꿈의 저편에서 나를 향해 손 흔드는 것을.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본다.
익숙한 도시가 이때는 평소와 다르게 낯설게 느껴진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여닫는다
혹시라도 밤의 평온함에 해가 될까 봐.

6월 16일 날씨 흐림.

돌맹이가 마치 솜처럼 가볍게 떠다녔고,
우리는 모두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간다.
갈매기가 사방에서 끊임없이 오가며
나에게 날카로운 소리로 경고했다.

떠도는 돌들이 곧 돌덩어리로 다시 돌아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망망대해로 떨어질 거라고.

릉중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상에서 믿을 수 없는 환영을 자주 보았다.
(일부 약이 확실히 환각을 일으킨다고 한다)
어느 날 자정,
싼마오가 침대맡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는 많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싼마오는 이 병실에 온 적이 없다고
간호사가 나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 봤는데.

6월 20일 맑다가 구름 많음

우리는 고래가 노니는 해역으로 갔다.
고래의 신비로운 노랫소리에 맞춰
물보라가 춤추듯 피어올랐다.
만약 고래가 이때 돌연 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줄줄이 떨어지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잠겨
고래의 유유한 노랫소리를 계속 듣게 될 것이다.

6월 24일 흐리고 어두운 날씨

마법사의 마법 모자들은
황야에서 회의를 열어,
세상에 모든 외로운 이들이
함께 즐거울 수 있도록
함께 마법을 부리기로 했다.

강한 바람이
그들을 방해했고
모자들은 마치 낙엽처럼 사방에 흩날렸다.
외로운 사람만 남겨져
바람 소리 사이로 깊은 한숨만 들렸다.



6월 28일 날씨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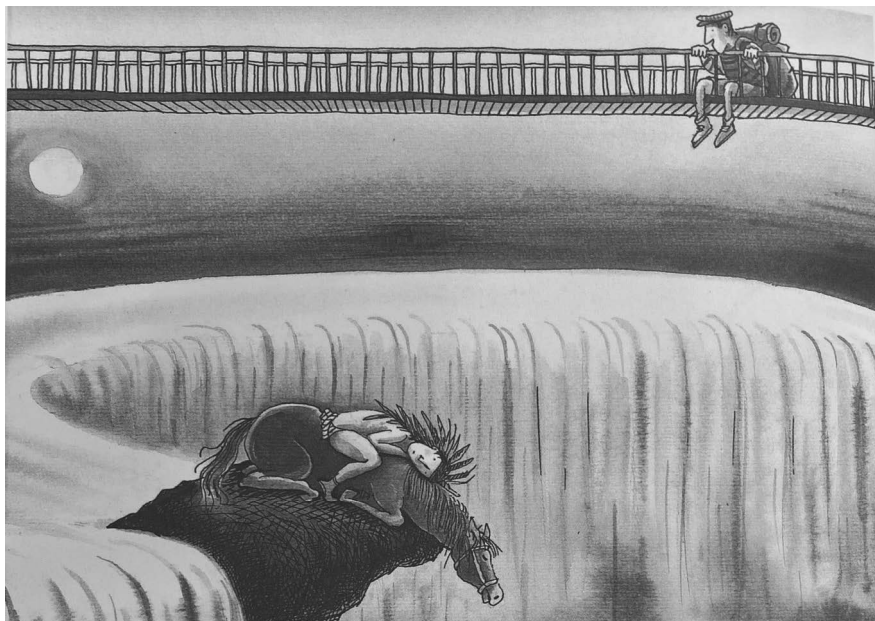
지도 속 사라진
어느 한 사막으로 들어서자,
난 이름을 잃었고,
신분도 잃었으며,
기억 또한 잃었다.

지구는 멈추지 않고 돌고 돌아,
돌고,
돌고,
또 돌아.....
난 도대체 언제
지구 인력에서 벗어나
지도에서 사라진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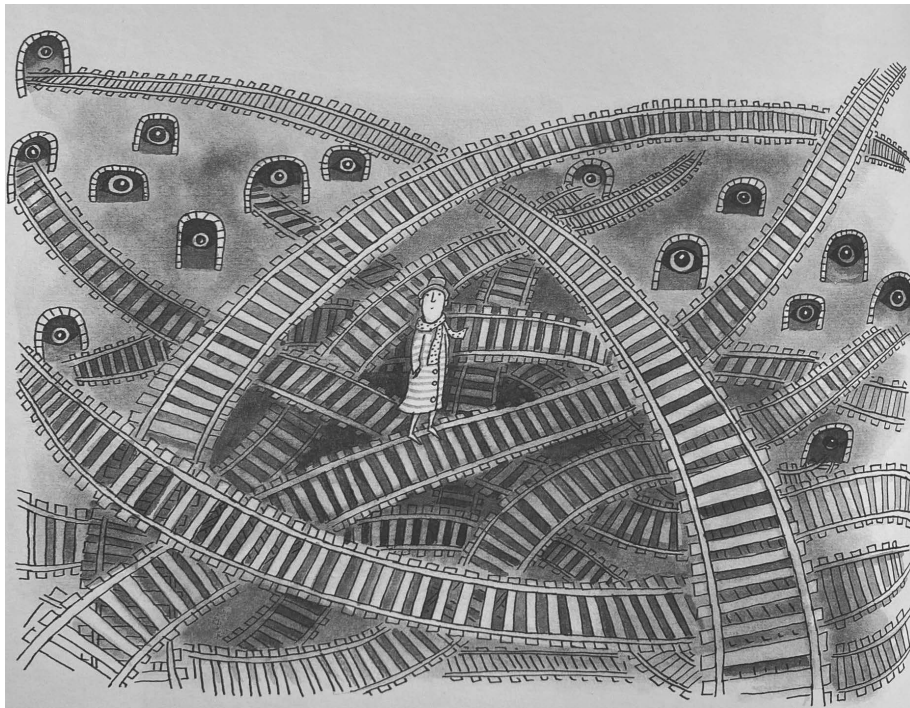
7월 3일 날씨 맑음

그는 지쳤다.
그의 말도 지쳤다.
심지어 그들을 쫓던 사람도 지쳤다.

웅장한 폭포만이
여전히 쏟아질 뿐이다.



가끔 아무렇게 그린 작은 그림이, 나중에 장편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밑그림이 되기도 한다. 이 그림이 어쩌면 나중에 완성한 장편 작품 <지하철>의 시작일 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혼돈과 모호함 속에서, 서서히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7월 12일 날씨 맑음

놀이공원으로 향한 직통버스는 이미 만석이니,
늦게 오신 손님들은 다음 열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탑승 손님 중,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표정을 찡그린 손님들께서는
즉시 차에서 내려주시길 바라며,
무덤으로 향하는 열차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7월 17일 맑다가 비가 왔다가

내가 타던 회전목마가 도망쳤다.

가연은 그 목마는
비록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돌고 있다.

그는 평생 돌고 돌았기에,
앞으로 달려 나가야만
진정한 자유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7월 23일 날씨 맑음

시계가 멈췄다. 비뚤어졌다. 고장 났다.
초침이, 분침이, 시침이 떨어졌다.

나는 들고, 늙고, 고장 났다.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사랑이 멈췄고, 사랑이 뺏겨졌고, 사랑이 고장 났다.
달콤함은 사라졌고,
고통스러운 기억만 하나하나씩 떠오른다.
외로움 또한 때맞춰 찾아왔다.

7월 26일 날씨 흐림

까마귀가 다쳤다.

다시는 나를 데리고 비행을 할 수 없단다.

나는 위로를 하며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목이 메어와

흐느껴 울어버렸다.

비록 계속 그림을 그려왔지만,

항상 스스로 그림을 못 그린다는 생각을 해왔고,

자신에게 많은 의문을 품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그림을 그리고서는 문득

내 그림 실력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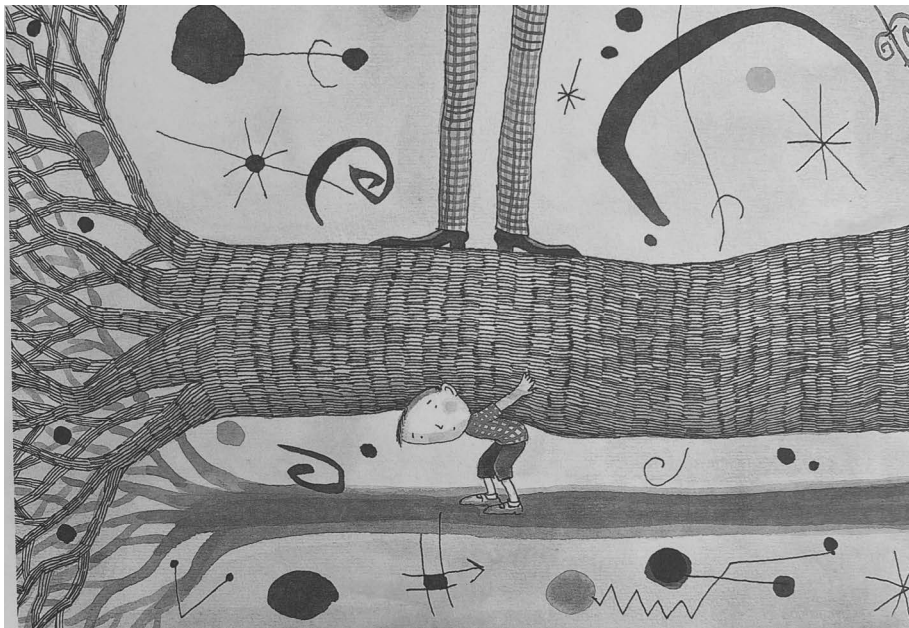
왜 이 그림이었을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8월 9일 날씨 맑음

미로는 자꾸 우리 같은 아이들의 그림을 몰래 따라 배웠다.

아니다, 우리 그림뿐 아니라,
우리의 환상, 슬픔, 공포와 기쁨도 몰래 따라 배웠다.

다음부터 다시는 미로랑 같이 놀지 말아야겠다.



8월 11일 날씨 흐림

해바라기가 알려주기를,
태양을 바라보며 계속 뺨어 나가면
모든 날이 단순해지고 아름다워진단다.

얼마 전
나는 몰래 정원에 있는 야생 꽃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고,
그들은 좋아 어쩔 줄 몰라 했다.

나중에 그들이 다시 나에게 조심스레 알려주기를,
실은 달을 바라봐도
같은 효과가 있단다.
단지 조금 오래 걸릴 뿐이란다.

8월 17일 날씨 흐림

쌍둥이는
평생 즐거웠던 적이 없다.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했던가.
늘 서로 비교했고,
누가 누구보다 우월한지,
누가 누구에게 방해가 되었는지 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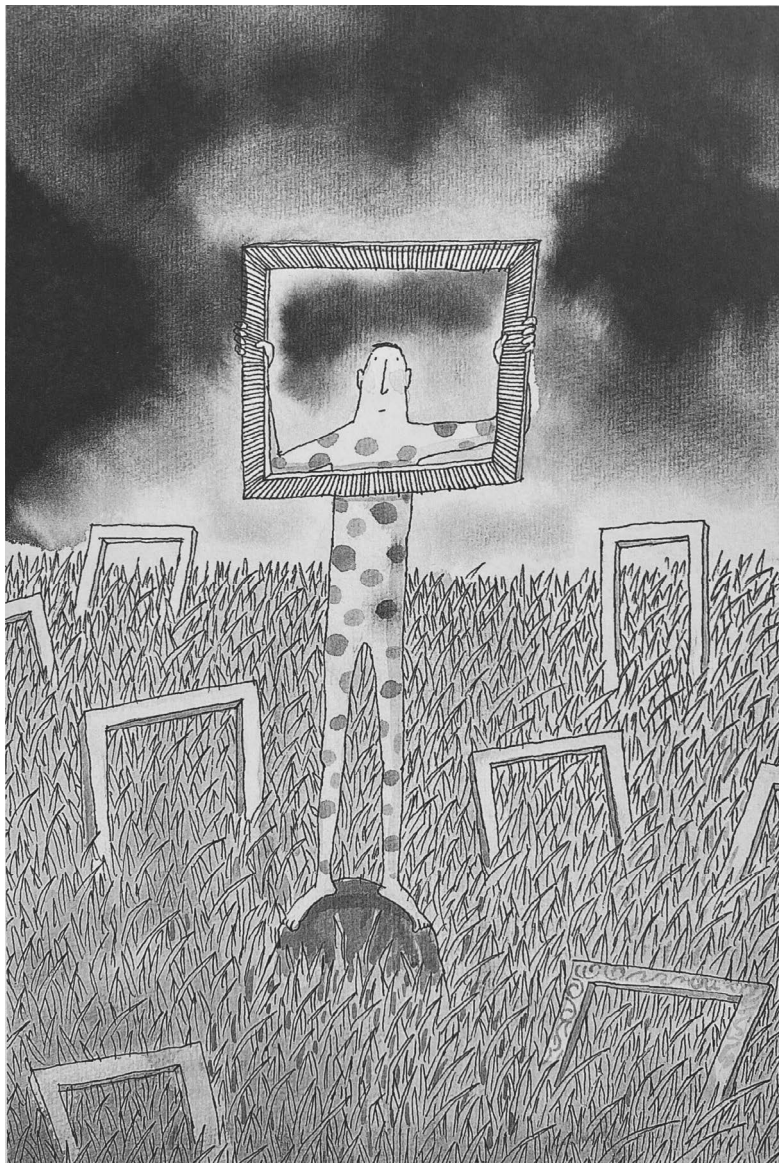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훌륭한 역할은
한 사람만 독차지할 수 있나 보다.

8월 20일 날씨 흐림

아이리스 꽃향기가 가득한 이른 아침,
나는 멀리 있는 새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듯하다.



내 기억에,
아마 난 한 번도 자상화를 그린 적이 없다.
아니면, 내가 그린 모든 그림이
사실은 나의 자상화이나 마찬가지로인가?



그림을 오래 그리면, 종종 나도 모르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관성에 빠져
계속 옛날 방식을 반복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멋진 문장과 함께할 그림을 그릴 때면
난 늘 그 속에서 넘쳐나는 양분을 받아
자신도 생각지 못한 장면을 그려낸다.
아마도 이게 삽화를 그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8월 26일 날씨 맑음

앞사귀 하나가 곧 떨어지려 한다.
이 세상에서 이걸 본 사람은 나뿐이다.
난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게 없지만,
그에게 약속했다.
영원히 내 맘속에 그가 살아있도록 할 거라고.

9월 5일 날씨 맑음

나와 시간은
같이 서랍 속에 누워 잠을 청했다.
나는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봤지만
여전히 잠이 들지 못했다.

시간은 조용히 그 옆에 누워있다가 말하기를
사실 잠이 든 적이 없다고 했다.

9월 7일 날씨 흐림

덩굴로 영커있는 이 가슴에,
아주아주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지,
주인이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지 못한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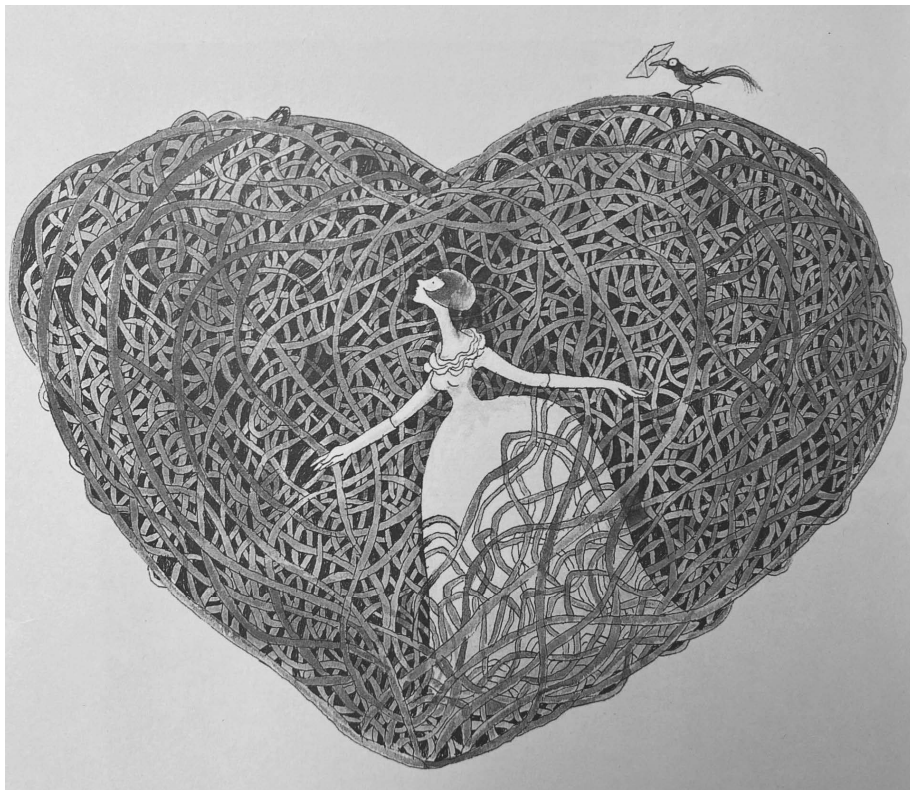


그림 그릴 때

나는 외부의 실제 세계를 그려낼 수 없었고,

게다가 실제 광경을 거의 보려 하지도 않았다.

난 그저 작가가 글로 묘사한 여러 풍경을 그려낼 뿐이다.

내가 읽을 때 포착한 이미지나,

의식의 흐름대로 떠올린 환상이나 꿈결,

내가 내보이고 싶은 마음속 세계를 그린다.

그러나 이렇게 무의식중에 나는,

너무 많은 비밀을 나도 모르게 그려내 버린다.

9월 13일 날씨 흐림

서툰 몸짓으로 그 인조 날개를 조종해보며
하늘을 날고자 노력했다.
새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따라 배우고자 했지만
나는 내려다보는 게 무섭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미궁 속으로 추락해버려 부서질까 봐.

9월 20일 날씨 흐름

나 자신을 화분에 심었다.
꽃인 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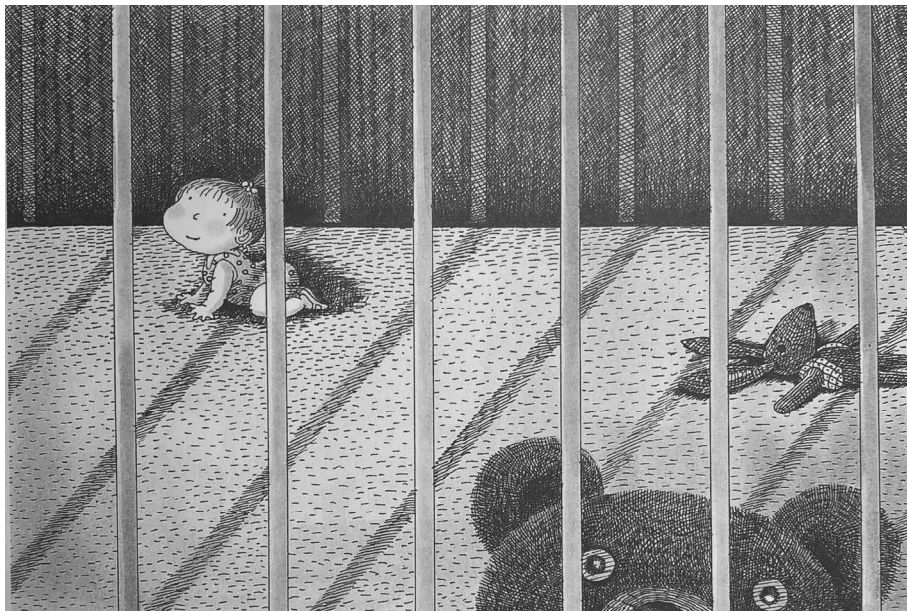
도시 골목길은 어둡고
햇빛은 늘 짧았고,
빗물은 부족하고 공기는 탁했다.

오로지 새벽 3시쯤
겨우 달이 조용히 하늘에서 지나가는 모습을 힐끗 볼 수 있었다.

나는 꽃봉오리를 터트리지 못한 꽃이다.
아직 피는 법도 못 배웠는데, 벌써 시드는 것에 익숙해졌다.

9월 24일 날씨 맑음

아이 침대에 석양이 스며들어왔다.
아이는 말했다.
이건 침대가 아니라
하나의 감옥이라고.



9월 31일 날씨 맑음

난 모두 다 잊었다.

모두 다 잊었다.

다 잊었다.

잊었다.

병에 걸려 아팠던 그 시기에는
세상에 그 어떤 밝고 긍정적인 축복이나 응원도
나는 그저 짜증 나기만 했다.
그러나 겉으로 크게 표현할 수 없었다.
나의 거절로 인해
세상에 모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웠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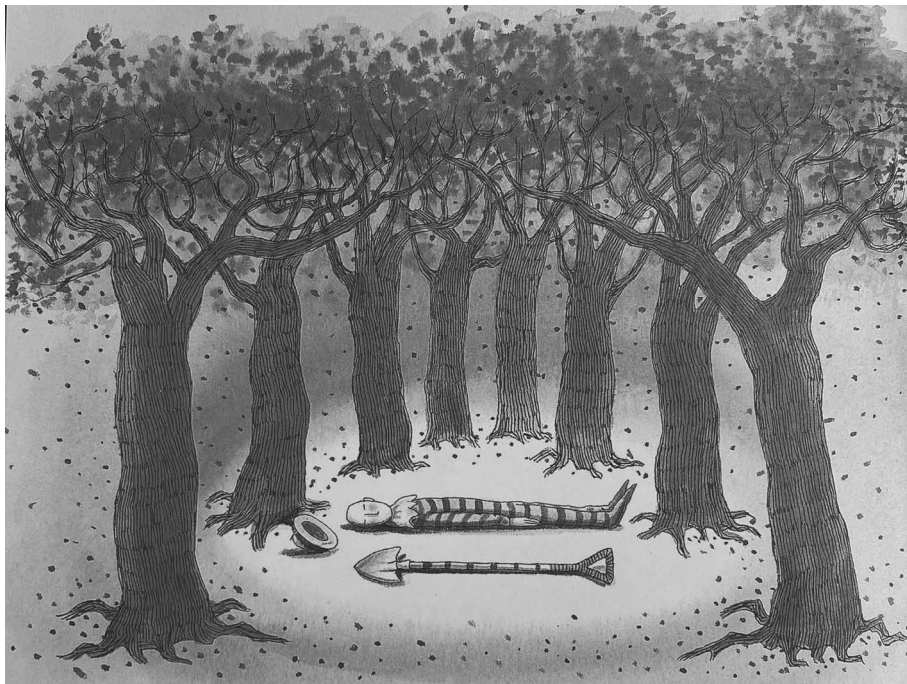
나무숲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
특히 짧은 선들로 한 획 한 획
나무줄기와 나뭇가지를 가는 선으로 그려내는 것을 좋아한다.
어둑해진 오후,
마치 만 번 베껴 쓰기 벌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책상에 앉드려,
열심히 나의 숙제를 한다. 그 어느 한 획도 대충 그릴 수 없다.



10월 12일 날씨 맑음

그는 잊었다.
원래는 숲에 구멍을 하나 파서
모든 꿈을 묻으려고 했다.

그러나 어쩌다 잠들어버렸고,
꿈들은 모두 달아나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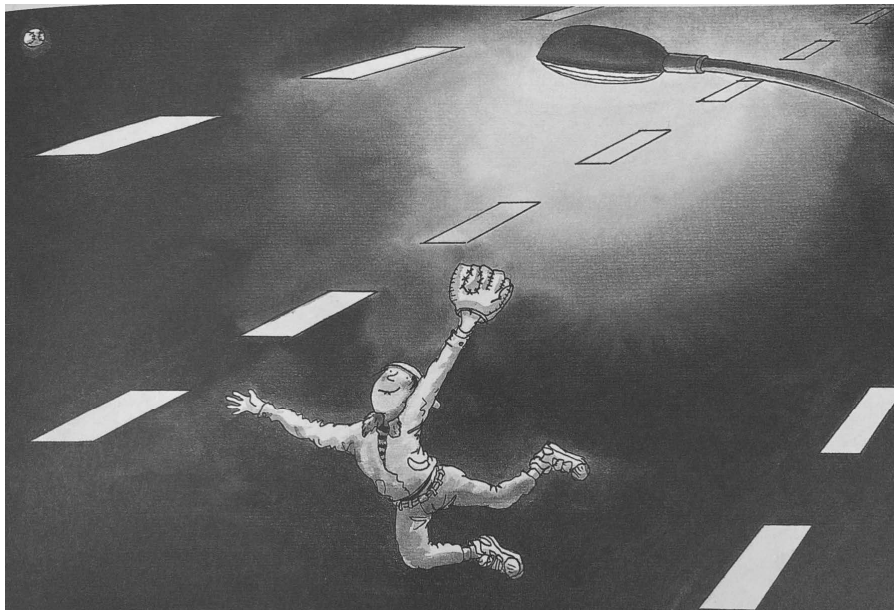
10월 16일 날씨 맑음

공중볼에서 한 번, 땅볼에서 두 번 실책을 한 이 남자.....

더 암담한 것은

교통법규 제3388조

「행인은 고속도로에서 꿈에서 깨지 않은 채 돌아다닐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면,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나중에 세 장이나 받았다.



10월 25일 날씨 무더움

그들은 도시 동쪽 교외 지역으로 숨었다.
황폐한 5층짜리 건물 꼭대기의 풀숲에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서쪽 숲에서 온 길도 모르고 방향감도 없는
평범한 작은 새에게 쉽게 들통이 났다.
발견될 때 그들은
발버둥 치거나 반항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고,
그들의 평온한 모습은
마치 그저 황혼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10월 29일 날씨 맑음

한밤중에 울리기 시작한 피아노 소리를 들은 적 있나요?
바흐였나, 모차르트, 아니면 쇼팽이었나?
그건 천사들의 음악 소리였죠.
몹시 아름답고도, 또 몹시 단조로운,
또 하나의 무채색 꿈으로 사람들이 저절로 빠져들게 만들죠.

11월 3일 날씨 맑음

땅이 갈라졌다.

3년하고도 7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오늘 오후 4시 26분 9초에

정확히 비가 올 거란다.

그들은 중앙광장에 모여, 함께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지금은 오후 4시 37분 42초

물고기 떼가 하늘을 유유히 지나가는데,

빗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토끼 한 마리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뚝뚝 땅에 떨어지자,

메마른 흙 속에서 새빨간 장미 한 송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11월 9일 날씨 맑음

사실 도시는 움직일 수 있다.
만약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싫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어대며
사방으로 다시 뛰어다닐 것이다.

그 누구도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가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반드시 보이는 냉정한 태도라는 것이다.

11월 17일 날씨 맑음

그녀는 크게 숨을 몰아쉬며
보루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다.
상처를 입은 그 구름은, 도움도 없이 옆에 늘어져 있다.
그의 동료가 도움을 요청하러 빠르게 날아갔지만
그녀는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모르는 지구상의 어느 한구석에서 일어났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지? 사람들은 관심 없다.
상처를 입은 그 구름은, 늦지 않게 치료를 받았을까?
아는 사람 또한 없다.

11월 22일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

사방에 가득 떨어진 꽃잎.

조심해, 발걸음을 함부로 내딛지 마.

산들바람이 깔아놓은 꽃길을 밟아 망가트리면 안 되니까.



11월 24일 날씨 맑음

나에게 비밀이 하나 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천 년을 이어온 대단한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

불쌍한 곰돌이가

나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고,

나의 신통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는

누구한테 시도해야 하나?

음..... 잘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11월 30일 습하고 추움

비가 그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비가 그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손바닥에 점점 땀이 나 축축하고 끈적이더라도
그들은 그대로 원래 그곳에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모르는 사이 어느새
태양은 이미 철제 울타리 뒤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12월 3일 날씨 맑음

모두 말한다.

나이 사십이 넘으면,

이제 자신의 얼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12월 5일 기온이 다시 오름

당연히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그래야 너를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
돌다리를 건너다,
다리 위에서 냇가 물고기들을 구경하는 너를 보았고,
그리움의 숲에서 뛰어가는 너를 보았다.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꽃을 꺾는 너를 보았고,
아마 네가 가장 좋아하는 국화일 거라고 확신했지.
길가에 서 있는 너를 보았고,
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구름 한 점을 바라보고 있었지.
솜사탕 같은 그 구름은
아마 조금 전 내 머리 위를 유유히 지나갔을 거야.
난 너에게서 눈을 땔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저 멀리에서 너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기에.

12월 27일 날씨 맑음

그래, 이렇게 하자.
결정했으니, 절대 후회하지 말자.

나는 말할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스스로 말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었다.

잘 되었지, 나는 드러누웠다.
더는 일어날 힘이 없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옆에서,
계속 같은 소리를 냈다.
도-도-도-도.....
미-미-미-미-미-미.....
라-라-라-라.....
시-시-시-시-시.....

그는 옆에서,
끊임없이 같은 슬픔을 반복했다.
도-도-도-도.....
미-미-미-미-미-미.....
라-라-라-라.....
시-시-시-시-시.....

후기



만약 몇 년 전 크게 아팠던 경험이,
공포로 가득한 그 암담한 세월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랐을까?

만약 그때 이 그림들을 남기지 않았다면,
나 또한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시절을
점점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이 작품들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또 희망을 품는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을 떠올렸고,
나는 매일 다른 이의 이야기를 빌려,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슬쩍 내비쳤고,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울적한 기분을 풀려고 했다.

지금은 공포도 사라졌고, 슬픔도 없다.
우울한 인생이었던 그 시절은, 이제 그저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다.
외롭고도 아름다운.

지미의 낯선 세계

차이수링

지미 그 자체는 하나의 스타일이자, 하나의 색깔, 태도, 감정 또는 느낌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현대적이고, 도회적이며, 타이완과 서구적인 느낌이 섞여 있습니다.

“타이완과 서구의 느낌이 섞여 있다고요?! 지미의 그림은 유럽 느낌이 강하고, 심지어 프랑스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는 완전히 프랑스 작품 같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제 프랑스 친구도 매우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원래 일러스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저 타이완에도 이런 프랑스풍의 작품이 있다는 게 의외였기 때문에 좋아했을 겁니다.

“지미의 책은 타이완 출판계의 해리포터죠! 신간이 나오면 바로 삼만 부 인쇄부터 시작하고, 타이완 도서 판매량 최고라는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며 그 인기는 감히 부정할 수 없죠! 독서인주간신문은 ‘지미는 타이완을 거점으로, 세계를 포용하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보도했죠. 어쩌면, 타이완의 창작성을 세계로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미를 통해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타이완에서 만들어낸 타이완의 유럽풍이라느니 하는 것들을 더는 따지지 말고, 지미를 시작으로 타이완의 브랜드를 해외

로 수출하고 뺏어 나가야 합니다. 좋은 것이란,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유럽적이면서도 타이완적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완 작품인데, 이토록 유럽적인 느낌이라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미의 작품을 즐겨 감상하고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그의 작품이 '조금도 타이완 작품 같지 않다'는 것 때문만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지미가 창조해낸 타이완적인 낯선 상황들은 확실히 그의 작품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긴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국적이며, 멀리 있는 듯하면서도 유쾌한 낯선 상상을 경험하게 되고, '세계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차이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집단적 상상은 아로마 테라피와 매우 유사합니다.

'낯설게 하기'의 여가성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지미의 '대중성'안에 있는 더 진지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아로마 오일이나 허브차가 효능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spa 마사지가 비록 정규 의료 시스템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스파 마사지가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순 없을 겁니다. 병원 진료소보다 더 세심하고, 더 친절하고 더 개개인에 들어맞는 방식이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편안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와, 달콤한 색채 중에서 만나는 쓸쓸한 어둠 속에서, 비로소 소비적이면서도 감각기관이 환상과 결합한 화학요법이 됩니다. 라벤더의 보랏빛은 두통과 불면증에 효과가 있고, 장미의 분홍빛은 초조함과 메마른 마음을 위로하고, 레몬의 시큼함은 염증과 노폐물을 씻겨내고, 두송의 묵직함은 경솔함과 중압감을 진정시킵니다.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병원에 갈 필요까진 없지만 죽을 것만 같은 중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향기를 배합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여가를 위한 소비를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문제에 대해 분류를 진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분류화 과정으로 알맞은 처방을 찾아 위안을 느끼고 의존하고자 합니다. 아로나나 허브 또는 별자리, 또는 Sogo나 중싱백화점 또는 웨이핑 광장, 또는 요가, combat 또는 줌바 등 피트니스센터에 있는 여러 운동 프로그램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휴대전화의 모델명이나 스크린의 흑백 혹은 컬러도 선택사항입니다. (광고를 보면, 연인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야. 너는 흑백이고, 나는 컬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각자 여러 가지 ‘스타일’로 생활·소비·의료·운동 방식에서 동일시되는 집단을 찾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개개인 간의 차이에서 교집합을 찾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운 환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 세밀하고 다양한 분류 방식으로 거대하고 견고한 현실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창조할 수 있는 문화 수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물상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상황, 어떠한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수천만 가지 다른 형식과 색채, 그리고 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러나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 결국은 시장의 평가와 이윤, 대중의 유행과 취향에 의해 좌우된다면? 질적 보다 양적인 상의 확장을 기대해야 할까요?)

“잠깐만, 물상의 확장이 뭔데요? 당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점점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요! ”

<지하철>의 어느 한 페이지를 보면, 의자의 여러 변형이 나옵니다. 등받이가 높은 의자, 낮은 의자, 나무로 제작된 의자, 벚짚으로 꼬아

만든 의자, 벨벳으로 된 의자, 아크릴로 된 의자, 클래식한 의자, 현대적인 의자, 무채색인 의자, 컬러풀한 의자 (세상에! 책 속 그림에는 네 줄로 늘어선 의자들의 형태는 정말 다양한데, 의자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왜 이리 부족한가요!). 구찌의 디자이너 톰 포드는 의자의 형태는 사람과 가장 흡사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것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게 하고, 어떤 것들은 다리를 걸치고 쉬고 싶게 하고, 어떤 것들은 누워서 잠을 청하고 싶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리 또는 제가 말하는 물상의 확장은, 비록 실제 사물이 점점 멀게 느껴지게 되지만, 사람들은 물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또 소외되고, 또다시 소외되어, 우리가 물화 논리에서 분류된 감각기관은 훨씬 전에 이미 물화로 인한 소외에 의존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음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상의 확장이라는 의식 자체가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 됩니다. (어쩌면, 번잡한 물질세계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었기에 얻은 상황의 즐거움이랄까요?) 의식의 확장에서 물상의 진실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범주 상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수많은 의자 중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상의 확장으로 인해 파생된 상황은 일종의 환상 또는 착각이며, 반드시 환상 또는 착각의 상황 속의 진실한 감정이 진실의 근거가 됩니다. 감히 발자크식 사실 묘사를 비교해보자면, 세밀하게 의도한 상황에서 동일한 형용사를 반복하여 열거해 조합하는 것이죠. 기호의 확장을 통해 한 페이지 안에서 연속으로 열댓 개 형용사를 이용해 '추악함'을 묘사할 수 있고, 또 말투, 옷차림, 외모, 집으로 '인색함'의 전형적 모습을 여러 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묘사 기법은 세부 묘사를 나열하고 과장을 실재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화의 사실 묘사를 비유한 것입니다. 한 장의 그림이라는 틀 안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순진무구한 표정은 확장됩니다. '순진무구함'은 지미의 낮선 상상 세계에서 실재를 확장하는 중심입니다.

순진무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지미의 실재 확장 능력으로 인해, 낯설게 만들어진 상황에도 타이완 사람들은 '실재적'으로 읽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적이면서도 타이완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당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작과 실재, 창작과 현실의 관계군요.”

예전에 마음이 크게 아픈 적이 있어서 사방으로 명의를 찾아다녔었습니다. 추나요법도 발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병이 점점 영혼까지 침식하려 할 때, 매일 신선한 채소를 먹고 새벽 장미 보는 등 나만의 치료 방법을 찾았고, 의료/여가의 의식을 확장하면서 슬픔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의식은 점점 슬픔을 대신했고, 창작력을 발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복용하는 약, 바르는 약, 문지르는 약, 붙이는 약, 맡는 약까지 다양한 약을 바꾸는데 분주해지니 처음에 슬펐던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약을 바꿔 가는 과정에서 슬픔에 질적 변화가 생겨, 도대체 슬픔이 먼저였는지, 치료 방식이 먼저였는지 헷갈리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심하게 오염되고 진흙으로 뒤덮인 강의 신처럼, 반드시 최고급의 약재로 목욕해야만 온몸의 오물을 벗을 수 있는 거죠. ”

“???”

지미의 <지하철>에 15살의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는 성장해 천사를 떠나면서 눈이 멀게 됩니다. 현실의 입구와 출구 그 사이에서, '지하도 같은 복잡한 어른들의 사회도 천사의 순수함처럼 여전히 아름답고 찬란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반복합니다. 선명하

고 강렬한 색채로 극대화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현실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지미를 좋아하기에 지미의 영향을 받고, 그가 만들어낸 일련의 논리를 소비하고, 또는 유행처럼 지미를 쫓는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미적 감각이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도달한 아이들, 청년 또는 성인이 점점 더 많이 양성됩니다. 유행하는 기호의 파생이 미적 감각에 대한 추구와 결합하여, 현대사회에서 부유하고 의식 있는 현대 시민으로 양성되지 않을까요?

‘낮설게 하기’의 예술성

<Sound of colors>는 <지하철>의 영문 제목입니다. 시인에 대한 헌정으로, 릴케의 <눈먼 여자>를 인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채는/ 소리와 향기로 변하여/ 마치 음악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라는 문장은 보들레르의 교감(Correspondances)을 연상케 합니다. 촉각, 후각, 시각, 미각, 청각이 교차하고 호응하며 확대하는 과정에서, ‘향기’의 비유로 아이의 살결이나, 푸른 초원, 감미로운 음악 등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압’으로 시인이 쓴 향기를 대신한다면, 향기는 억압처럼 여러 음유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릴케나 보들레르의 서구적인 낭만에서, 물질계의 시각적인 부분은 반드시 승화되어, 위로 초월하거나 아래로 몰락하며, 이성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해 짧은 순간을 통해 영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을 숭상하는 우리들은 억압 속에서 도피하고, 곤경 속에서 꿈을 꾸며, 지배 속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념과 영원은 우리에서는 너무나 큰 사치이며, 심지어 우리는 꿈꾸는 방식과 방법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는 지미의 작품은, 개인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몹시 고달픈 속박에서, 그림을 빌려 현실을 드나드는 출입구를 찾은 것입니다. 지미는 소프트 포커스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려 했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미화하고 그림책 페이지를 한 장씩 채워가며, 자신 그리고 또 타인을 위해 집단에서 분류된 개인에게 맞춰진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 홀로 사는 남자 또는 여자를 위한 <미소 짓는 물고기>, 일찍이 동심을 잃어버린 아이 <사진첩>,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숲속의 비밀>, 외로움을 견디며 성장하는 소년 <달과 소년>, 도시의 연인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또는 매우 어둡고, 무서우면서도, 심오한 어른들의 세계 <외롭고도 아름다운>까지 마치 기호 자체가 확장한 세계이자, 서사를 만들어갔습니다. 각각의 책에 나오는 여러 인물은 다른 책에서 무의식중에 나타나며, 마치 벽을 통과해 넘나드는 영혼처럼, 그림의 현실 속에 드나듭니다. 이 책 속에 봄비는 지하철 통로에서, 혹시 보았나요? 빨간 모자와 늑대, 작은 왕자, 호두까기 인형, 고독한 남자와 미소 짓는 물고기, 앨리스 나라의 고양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사자와 양철 나무꾼, 마티스 화풍을 모방한 사람의 형상도 있습니다. 또는 죽음과 삶이 서로 뒤섞이며 엇갈리는 이 작품에서, 뜬금없이 장아이링이 말한 삶처럼 이가 득실대는 화려한 도포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본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나요? (어쩌면, 앞에서 말한 이러한 형상들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는 사는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소프트 포커스 방식만으로는 지미 작품의 대중 예술성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소위 소프트 포커스란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에서 낭만적 느낌을 의미하고, 아마 현실 억압에 대한 미화라고 할 수도 있으며, 또는 '반드시 즐거워야 해, 반드시 행복해야 해'라는 마음이 담긴 비애(반드시 행복해야 해! 어느 답례품 과자 광고에 담

긴 일본만의 슬픈 정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군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애는 '반드시'에 대한 편집증으로 비롯된 것이고, 그 편집증은 곧 예술 심미에서 꼭 필요한 낯선 느낌을 가져오는데, 바로 작품의 현대 예술적인 속성입니다.

현대 예술의 속성은 다름과 같음이 공존하면서 생긴 일종의 낯선 느낌입니다. 현지적인 것에 외국의 것을 더할 때, 외국의 것이 아직 현지화되기 전, 처음 느낀 생소함과 놀라움으로 낯선 느낌을 만들어 냅니다. 또는 소위 현지의 것에 외국의 것이 섞여 들어가면서, 원래의 자신은 그동안 당연히 여겨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낯설게 하기'로 인해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낯설게 하기'는 현실과 거리를 두는 것이자, 혹은 현실과의 불일치 또는 박리입니다. 가까운 듯 먼 듯 모호한 그 사이에 있으며 현실의 억압과 초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문득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은' 공백, 정체, 정적을 경험하고, 또는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순간 뉘을 놓고 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이상한 자세, 균형 잃은 상태, 우스꽝스러운 동작, 학대받는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지미의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 풍선처럼 떠오른 코끼리, 욕망만큼 부풀어 오른 토끼, 숲속에서 갈증이 난 고래, 무표정한 얼굴에 초점 잃은 눈빛, 또는 문의 이쪽 편에 서서 문 저쪽 편도 이쪽처럼 황량한지 물어보는 새끼돼지 등, 지미 작품에서 보이는 일정한 패턴과도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듯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에서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 마디입니다. 지미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달콤하고도 쓸쓸한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의 옆모습은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고, 누구를 사랑하는 건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마치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

듯이 복적이든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고독함은 늘 공존하는 것이죠. 마치 이 책의 10월 26일처럼, 또는 기억해야 하는 날이건 아닌 날이건, '바람이 불자 낙엽이 하나둘 떨어진다'라는 글귀와, 이뤄지지 못한 그 연인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에 대해 남아있는 기억이라곤 비에 젖은 전화번호뿐이다'라고 지미는 그림 옆에 글을 덧붙였습니다. 글에서는 연인의 가슴 찡한 엇갈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 떠오른 서글픔이 오히려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본 것은 그림에 느닷없이 등장한 메마른 나뭇가지와 그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이고, 오히려 연관성 없는 그 부분들이 내 마음에 짙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지미의 낯선 느낌은 쓸쓸한 처지에 대한 세부 묘사를 미화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쓸쓸함은 고도의 달콤함과 상대적입니다. 화면의 구석 곳곳에서 기묘하게, 세밀하게, 한 획 한 획을 통해 쓸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풀 하나, 나뭇가지 하나, 벽돌 하나, 또는 고양이나 새의 털 한 가닥. 쓸쓸함을 미화한 그 모든 부분이 지미의 '사실적 표현' 방식이며, 우리 사회에서 부족하고, 지향하는, 현재 습득 중인 역량을 나타냅니다. 즉, 현실에서 고달프거나, 비속하거나, 부득이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린다 해도, 여전히 유머 있게, 평화롭게, 조용하게, 인내하며, 심지어 우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미의 창작세계 안에 존재하는 그 현실에서는 요소와 조합 그리고 구조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 획 한 획 뚜렷하다는 것 또한 지미의 '초현실적' 표현 방식입니다. 뚜렷한 획의 물질성은 지미의 가장 초현실적인 진실입니다. 나뭇가지와 문은 지미의 모든 그림 작품 중에서 가장 신기하고, 매혹적인 출구이며, 화면 밖의 낯선 지점 'point of estrangement'으로 안내합니다. 쉽사리 꺼지지 않는 생명력으로 완강하게 죽음에 저항하려는 욕망이 반복적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의 무늬결을 따라가다 보면, 시공간이 곧 얼어버려 멈추게

됩니다. 빼곡한 필획들은 지미 자신과의 '낯설게 하기'이자 단절입니다. 무늬의 결속에서 우리는 지미를 잊어버리고, 지미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무래도 너무 몽환적이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볼 때, 만약 타이완 작품에서 마치 거울처럼 실제 타이완의 특징과 모습만을 보길 고집한다면, 확실히 지미의 사실 묘사는 타이완 작품 같지는 않습니다. 아,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을 본 적이 있나요? 물론, 그건 이미 한물갔죠. 현재 유행하는 부르디외(Bourdieu)가 좀 더 사회 현실과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 옛것으로 돌아가, 새로움을 찾는 것도 꽤 즐거운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건 바르트의 초기 작품 <모드의 체계(1967)>입니다. 그 당시 바르트는 지식인의 정체성은 매우 확고하고 명백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내막을 폭로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고, 소위 기호 체계 밖의 진실을 애써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즉 행동, 물질, 현상, 사건의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기호 체계로 인해 진상이 박탈된 진실, 마치 의복으로 인해 박탈당한 신체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바르트는 마치 패션에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줄곧 의복의 신화적 의미를 해독하고자 했습니다. 패션을 소설(허구)로 비유했는데, 중복 구조에서 조합되고 배열되며, 고정된 궤도에서 만들어져, 반복적으로 표면의 느낌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르트는 당시 여성잡지를 분석하며, 그림과 텍스트 대조에 대해 지적하기를, 텍스트가 그림의 주석을 강조하고 있으며, 흔히 이데올로기 세뇌의 수단이며, 허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텍스트화하고 합리화하며, 전형적인 여성의 특징을 구성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볍고 하늘하늘한 실크는, 주말 오후, 따스한 봄바람과 재스민 향기를 너에게 가져다줄 것이다'라는 문장을 보면, 마치 소설에서 사용하는 허구의 기초처럼, 패션은 의도한 바를 위한 일종의 수사 기법이며, 진실을 차용해, 꾸

며낸 진실은 이미 설계되고 조작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 구조와 역사의 관계는 우회적으로 서로 호응하는 관계입니다. 소위 시대는 사람, 시간, 장소, 사건 네 가지로 나뉘는데, 60년대의 록, 80년대의 화려함을 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이성적인 비평은, 주체의 세계에 대한 모든 역사적 행위가 결코 패션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의 시간과 공간에서 패션이 만들어낸 영향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위해 꾸미는 행위는 결코 진정한 행위가 아니며, 패션의 행위는 그저 주체가 사물에 대한 분주하고 맹목적인 설정을 이용한 것으로, 진실에 대해서 전혀 '타동'적인 동작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의식의 확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바르트 비평에서 지금 우리 소비 시대의 투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르트가 말하는 소설이 예술로 갖는 기괴함이란, 패션의 복잡한 세부묘사는 절대 진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짧거나 허구적일수록, 더 자연스럽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패션에 대한 묘사와 소설의 사실 묘사가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섬세하고 자질구레한 디테일이 더 많이 쌓일수록, 사실을 '묘사'한 모방 효과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패션이 만들어낸 진실 효과는, 본질적으로는 짧은 순간 허구를 통해 연출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이것은 바로 비진실한 소설의 진실이며, 비진실의 척도로 진실의 비율을 가능하게 됩니다. 세부 묘사를 축적하고, 화려하게 수식하고, 또 분별없이 세부 묘사를 써서, 가면과 복장, 의식으로 견고한 사회 신화를 만듭니다. 진실하지 않을수록 더욱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감각기관의 강약에 따라 속된 세상의 꿈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꿈은, 바르트 시대에서는 어쩌면 반드시 진실의 합리화 과정을 호소해야 했지만,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오락적으로 포장된 경험으로 꿈 자체의 비진실의 합리성을 보여줍니다. 비진실의 합리성은 경제시장의 소비 현실과 연결됩니다. 소비자가 없다면 진실을 비교 평가

할 기본조건도 없어집니다. 좋은 싫든, 우리의 진실과 꿈은 이미 패 키지처럼 하나하나씩 묶였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지는 실질적으로는 이미 심혈을 기울여 계획된 것이지만, 여행이나 나노 테라피에서 마치 우리가 모든 걸 직접 결정한 것 같은, 자유여행 또는 DIY인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데이터화된 소비자들은 제품 포장 선택에서 자주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 사이즈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또 만약 당신이 지미의 낭만적인 느낌을 좋아한다면,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그림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매한 음악 앨범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패션 브랜드의 소비 미학을 통해 지미의 예술이 갖는 진실을 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향에 관한 토론은 다음에 진행해야.....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지미는 이미 연속으로 여러 차례 최고 아동도서상을 받았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동적 요소가 심오한 세상 물질 속에서 성숙해져야만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순수함이 가진 마음을 치료하는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민 속에서 지미의 작품이 어린이 동화와 성인 동화의 교집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미의 그림은 저와 8살 딸 아이가 소통하는 특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종종 꺼내는 지미 책 중 하나인 <123 나무 인간>을 비롯해, 지미의 책을 보면서 각자 가장 창의적인, 가장 슬픈, 가장 즐거운, 가장 아름다운, 가장 무료한, 가장 무서운 장면을 각각 고르고, 왜 골랐는지 설명하고, 생활에서 느낀 감정을 함께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서로의 차이 속에서 저는 종종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의 잔인함에 놀랐고, 어린아이의 천진함이 결여되어 세상 물정에 대해 무감각해진 모습

에 우울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감정에 대해 더는 기술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그림책을 보는 가장 크고도, 또 사소한 즐거움일 것입니다.

백화점을 구경하다 보면 지미와 그의 작품이 이미 성공적으로 상품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것 같은 연인'이 생생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바뀐 것을 TV 뉴스 마지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미 현상으로 파생된 주변 효과와 이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딸아이의 학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지미의 <달과 소년>을 집중해서 읽는 모습을 보았고, 타이완 아이들이 헬로키티나 피카츄를 좋아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품격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이 빠르게 개발되고 확장되는 동시에, 인내를 가지고 배양되어야 하는 부분도 희생되지 않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은 한 페이지 속에 있는 한두 줄 텍스트를 빠르게 읽고 나서, 그림의 형상과 색채도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가더군요. 마치 손에 있는 코카콜라처럼 지미를 소비합니다. 회화작품의 텍스트와 비교해, 지미의 그림에서 낯선 느낌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지미는 소통하고 싶어 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텍스트와 지면과 비교했을 때, 일러스트는 그저 배경일 뿐이거나, 요점이나 강조점, 또는 단순히 장식을 위한 부수적인 부분으로 독자의 시선이 쉽게 스쳐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가 있는 페이지에서 벗어나 독립하면, 다양한 각도로 해방될 수 있으며, 근접에서 소외로 전환되고, 내재한 속성은 고도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며, 설령 고정된 줄거리를 통해 그림책으로 엮어진다 해도, 텍스트가 감춰진 상황에서 더 광범위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제외되어야 하는데, 텍스트가 한 편의 시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해서 중의적이거나, 아이들의 텍스트 독해 능력을 한 단계 향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그림

과 텍스트를 결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로, 미피(Miffy)의 작가 디크 부르너(Dick Bruna)는 마티스(Matisse)의 단순한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세 가지 광도와 다섯 가지 색상으로 그림책을 탄생시켰고, 한 페이지마다 네 줄로 두 운 또는 네 운의 텍스트로 아동문화의 기본 요소를 채웠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에서 건너와 타이완에서 상품화된 후, 이 문화적 요소에 대한 소개는 완전히 생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미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있어, 지미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인 영역 밖의 문제입니다. 브랜드 소비를 통해 생활 품격과 문화 소양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한 사회를 기대하는 공상가들의 생트집일 뿐입니다. 창작과 사회책임을 연관시킨다는 것, 너무 막중한 명제이지 않은가요? 또 다른 범주 상의 오류이지 않은가요?

우리의 걱정은 그저 '지하철 속 하얀 옷은 입은 그 소녀가, 마침내 끊임없이 이어진 통로에서 빠져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녀가 무대 위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며,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 마음속 은은하게 빛나는 빛을 헤매고 헤맵니다.

지미,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본문 저자: 단지양대학 불문과 학부장)